사진기 저주와 영사기 축복

(다니엘 2:1~24)

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사진기 저주와 영사기 축복>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사진기 저주와 영사기 축복'

사진기를 뜻하는 영단어 '카메라'라는 말은 어두운 방이라는 뜻의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옵스큐라가 어둡다는 뜻이고 카메라는 방입니다. 옛날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면 실제 자연의 색감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작은 화폭에 옮겨놓는 상황을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입니다.

밀폐된 방을 하나 만들고 피사체를 볼 수 있는 조그마한 바늘구멍 하나를 뚫어놓습니다. 그리고 반대벽면에는 하얀 캔버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빛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캔버스에 비칩니다. 그 풍경대로 사실적인 묘사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초기 사진촬영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카메로 옵스큐라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진사들은 검은 천을 뒤집어쓰고 피사체를 촬영했습니다. 사진기 내부를 작은 깜깜한 상자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영사기는 사진기와 반대입니다. 사진기는 렌즈를 통해서 바깥의 빛을 받아들여 필름에 각인시킵니다. 반대로 영사기는 내부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렌즈를 통해 바깥으로 발산됩니

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해보면 사진기는 반드시 내부가 깜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깥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사기는 내부에 광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밝습니다. 이 빛을 렌즈를 통해 밖으로 내보내면서 필름에 담긴 내용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의 인격에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참 빛이신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모습은 마치 광원이 내부에 있는 영사기와 같습니다. 영사기에서 나온 빛이 필름을 통과하여 스크린에 비치듯이, 눈을 렌즈 삼아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에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한편 마음의 광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의 마음은 카메라 옵스큐라와 같이 깜깜한 상자가 됩니다. 이 상태는 곧 사진기의 상태입니다. 눈은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을 표현하는 대신에 안으로 받아들인 대상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인 뜻과 생각과 계획들이 움직여가면서 삶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마음상태는 사진기와 같은 구조가 되면서 저주의 삶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영사기의 구조를 갖는다면 어떠한 환경에 처해있든 축복의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번민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오는 꿈이 영어성경에서는 꿈들이라는 복수로 등장하고 이후의 구절에서는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의 꿈이 생각할 거리가 많아 불확실하고 의미를 알 수 없어 두려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꿈의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신상이 부서지는 모습을 통해 드러난 바벨론 멸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갈대아 지방의 술사들이 언급되는데 갈대아 지방은 고대 바벨론 문명의 발상지로써 학식 있는 지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모은 느부갓네살 왕은 불가능한 명령을 내립니다. 꿈을 꾼 것을 가르쳐주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추고 해석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왕의 요구 앞에서 모인 자들이 얼마나 난감해했는지 10~11절에서 잘 드러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왕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2~13절을 보면 이러한 대답을 들은 왕이 이들에게 진노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

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던 시절에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애굽 땅 전역을 살펴보아도 꿈을 풀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적어도 바로가 꾼 꿈을 이야기해주었고, 결국 그것이 요셉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서야 해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하심이 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의 마음상태가 그 정도로 격해져 있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가진 격함이 바로 하나님이 선민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2장에서는 은밀하다는 단어가 9번이나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에 연관되는 17절부터 시작해서, 내일 살펴보게 될 3장에서는 더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은밀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은밀하다는 것은 곧 비밀스럽고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함이 뜻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뜻과 계획과 결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아직 인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나 인간들의 삶이 그 내용대로 이끌려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이 은밀한 일을 표현하지 못하며 살았고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진노했던 것처럼 진노하시리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다니엘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연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됨을 유지하는 자들이 선민입니다. 우리 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편식장이가 됨으로써만 하나님과의 연결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선민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고 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밀한 일과 계획과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한편 이러한 특권을 가진 선민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통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계획과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서 1장에서 하나님과의 연결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셔드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의 깨끗함이 유지되어야만 했습니다. 영사기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마음의 광원입니다. 선민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광원으로 들여놓은 영

사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방인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이 세상의 대상들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바깥의 빛이 들어오는 카메라 옵스큐라와 같은 상태입니다.
영사기와 같은 선민들의 삶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느낌이 표현되는 스크린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은밀한 뜻과 계획과 느낌이 내 눈에 비친 대상들을 향해 발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진기와 같은 삶을 사는 이방인들은 마음 안에 들어온 세상 것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부를 예로 들어 살펴봅니다. 선민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마주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서로의 마음이 채워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상태에서 배우자를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배우자에게 가지고 계신 은밀한 일들이 표현되게 됩니다. 이 일이 무엇인지는 나는 물론이고 세상 누구도 모릅니다. 이제 배우자는 나의 마음 속 광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 비치는 스크린이 됩니다. 나의 육체와 지정의가 하나님의 뜻을 비춰내는 영사기의 렌즈처럼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의 경우에는 사진기처럼 배우자라는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온 배우자에 대해서 경험과 능력과 지식과 기분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과 느낌에 의한 말과 행동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비추어 볼 때에 주관적 판단과 느낌은 항상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배우자에 대한 뜻과 생각만이 진실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기준에서 나타난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민이면서도 이방인과 똑같이 사진기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찾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은밀한 뜻과 계획과 느낌은 하나도 표현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에 세상의 빛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미 마음 안에는 눈과 귀와 손을 통해서 접하는 세상이 가득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를 붙잡으려 하지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평강과 해결은커녕 괴로움만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예로 사업하는 사람을 봅니다. 선민은 사업을 하더라도 영사기 사업가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사업의 상황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광원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사업장에 비치는 것입니

다. 이방인은 마음에 사업이라는 빛을 받아들인 후에 그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며 느낌을 발동시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되어도 사업을 위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잘못된 선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마음에는 사업을 들여놓고 주관적 판단과 생각과 느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사람에게 배우자는 이미 주어진 대상입니다. 산과 들과 바다도 주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선민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에게는 바다도 주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바다를 있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강릉에서 차를 타고 나가면 대관령이 보입니다. 이 대관령 또한 이미 완결되어 주어져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지금도 대관령을 저런 모습으로 있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갖는 의미는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안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타락의 상태는 곧 육체로 접하는 대상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접하는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느낌이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주었다면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가지각색의 주관적 해석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그 중에서 무엇이든 선택을 할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옳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은 애초에 꿈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란 경험과 바탕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신과 연결되어서 신에게 받는 것임을 알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 신과 연결된 참 지혜자라면 자신이 꾼 꿈을 맞출 수 있으리라 여긴 것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맞추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의 영사기로써 부상시키심과 동시에 선민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즉 선민이란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에 대해 은밀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사기처럼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건재하던 때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타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민이라면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계획을 삶에서 표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에 잡히는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주관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해석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애초부터 그렇게 살아온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선민이면서도 이방인의 삶을 좇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잘못된 선민의 삶에서 돌이켜 선민 본래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지만 마음에 가족이 들어와 있고 또 사업과 직장문제 건강문제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 상태를 수정해나가는 방법은 십자가 생활화뿐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은밀한 일이 강조되는 이유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은밀한 일에 대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은밀한 일들에 대해 단절된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녀문제를 마주하는 동안 우리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문제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는 자녀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스크린으로 삼아 은밀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표현해내야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진기가 되어 마음에 자녀문제 담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으면 주관적 판단과 뜻과 계획이 생겨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세상을 담는 상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고 세상 것이 들어와서 마음이 사진기처럼 되었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이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내가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받아들이는 동안 마음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담는 사진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또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증거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자녀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인 마음에서는 우울함과 괴로움과 슬픔이 생겨날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에 대한 분노까지 일어나며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럴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음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는 이미 내 자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본래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지면 그 증거로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평강이 주어지면서 기쁨과 감사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뜻과 계획과 생각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계획과 생각이 표현되는 영사기로써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사진기는 공개적으로 주어져있고 드러나 있는 대상들을 받아들여 필름에 새깁니다. 그러나 영사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필름의 내용을 대중들에게 보여줍니다. 대중들은 영상을 볼 때까지는 필름의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은밀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사기와 같은 인격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원죄의 체질은 자꾸만 세상의 대상들을 마음에 담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의 대상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저주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끝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잡음으로써만 우리의 인격을 영사기로써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대상들에 대해 은밀한 뜻과 계획과 생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붙잡아서 사진기가 되려하는 체질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밀한 뜻과 계획과 생각이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만지는 대상들에게 발산되고 표현되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은밀한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과 모든 복들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진기가 아닌 영사기 인격이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뜻과 계획과 생각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